



통권 제14호

# VIEW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27라운드

2011. 10.02 SUN 15:00 KICK OFF  
광주월드컵경기장



GWANGJU F.C Matchday Program 2011 VIEW-No. 14 ○ 발행일 : 2011년 10월 02일 ○ 발행처 : 광주FC 사무국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423-2 월드컵경기장내 2층 · ☎ 062)-373-7733

## POINT of VIEW

관전 포인트 광주FC vs 울산현대



광주FC 최대의 적 울산 무조건 꺾는다

10월 2일 오후 3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서 맞대결  
경기압도 불구 패배 쓴맛...선수단 강한 의지보여

**광주FC**가 올 시즌 최대의 적인 울산현대를 맞아 복수전을 펼친다.

광주는 10월 2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을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27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이번 경기를 위해 6개월을 기다렸다. 광주는 지난 3월 정규리그 3라운드 경기에서 울산에 2:1로 패했다. 전체적인 경기는 압도했지만 결과는 씁쓸했다. 특히 신생팀인 광주의 3번째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미심쩍은 경기운영이 발목을 잡았다. 필드 플레이가 아닌 반칙으로 인한 페널티킥과 프리킥 실점이라서 더욱 아쉬웠다.

당시 최만희 감독은 기자회견을 통해 “젊은 신생팀이, 선수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경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주 경직되게 풀어간다”며 “경기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참 답답할 뿐이다”고 쓴 소리를 내뿜었다. 하지만 시즌 초반 엉성했던 광주가 아니다. 절대 호락호락 당하지 않는다. 광주는 최근 2경기에서 5골을 뽑아내는 공격력에 힘입어 울산을 몰아치겠다는 각오다.

### 상승세 탄 광주 vs 울산

광주는 최근 겹경사를 맞으며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5라운드 성남과의 경기에서 원정 두번째 승리를 거둔데 이어 지난 홈경기에서는 부산을 상대로 2골을 뽑아냈다. 아쉽게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경기 내내 팽팽한 접전을 벌이며 화끈한 공격축구로 팬들을 즐겁게 했다.

또 광주의 아들 이승기가 생애 첫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다. 광주에서 나고 자라 복성중과 축구명문 금호고를 졸업한 이승기는 광주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올 시즌 유력한 신인왕 후보다.

부상으로 인해 지난달 13일 올림픽 대표팀 소집훈련에 불참한 김동섭은 재활을 끝내고 홍명보호에 재승선한다. 대표팀 간판 스트라이커 김동섭은 지난 성남전에서 영리한 플레이로 페널티킥을 얻어내는가 하면 전반 종료직전 감각적인 골을 뽑아내며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광주FC 산하 유스팀인 광덕중 손민우(14,FW)도 U-14 한일 교류전 대표로 선발돼 파주에서 담금질이 한창이다.

울산도 최근 3연승을 달리며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울산은 지난 인천 원정경기에서 2:0완승을 거두며 튼튼한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절실한 건 울산이다. 광주는 이미 고춧가루 부대를 선언한 상황. 울산은 반드시 광주를 꺾어야만

6강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다. 숨 막히는 양 팀의 대결이 기대된다.

### 뒤바뀐 운명 유종현 vs 김신욱 대결

광주와 울산에는 두 장신 선수가 있다. 바로 196cm의 거구 유종현과 김신욱이다. 둘은 1988년생으로 나이도 같다. 유종현과 김신욱은 고교와 대학시절부터 상대팀으로 자주 부딪혀 왔다. 당시 유종현은 공격수, 김신욱은 수비수였다. 유종현은 김신욱을 향해 달려들었고 김신욱은 철저히 막아냈다.

두 장신 선수가 맞붙을 땐 다른 선수들은 조연에 가까웠다. 그만큼 주목 받았다. 둘은 서로 견제하며 그렇게 우정을 쌓아갔다. 하지만 프로에 입단하면서 운명이 뒤바뀌었다.

이제는 김신욱이 뚫고 유종현이 막는다. 2년 먼저 입단한 김신욱은 공격수로 올해 광주에 등지를 뜬 유종현은 수비수로 전향했다.

유종현은 “대학 때는 내가 신욱이를 뚫으려고 했지만 프로에서는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 내가 신욱이를 잘 막아야 팀이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둘은 첫 만남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올 시즌 마지막 대결에서 과연 누가 더 자신의 능력을 뽐낼 지 주목된다.



감독 최 만 회  
1958.8.21/중앙대  
수원 2군감독(05~10)



## 2011 GWANGJU F.C MEMBERS

광주FC 선수단 소개



수석코치 여 범 규  
1962.6.24/연세대  
울산현대고 감독



수비코치 김 정 수  
1975.1.17/중앙대  
용인시청 수석코치



공격코치 남 기 일  
1974.8.17/경희대  
현안시청 코치(09~10)



전력분석 홍 문 기  
1966.7.2/광운대  
가오이 고등학교 감독



트레이너 추 원 호  
1968.12.24/영남대  
대한트레이너협 정회원



트레이너 박 성 필  
1977.3.15/울지대  
대한트레이너협 정회원



주치의 이 준 영  
1970.7.15/조선대 교수  
조선대 경형외과학교실



1 박호진·GK  
1976.10.22/190cm/65kg  
연세대



2 정우인·DF  
1988.2.1/185cm/76kg  
경희대



3 박병주·DF  
1985.3.24/185cm/79kg  
단국대



4 이 용·DF  
1989.1.21/187cm/73kg  
고려대



5 임선영·MF  
1988.3.21/185cm/77kg  
수원대



6 김은선·MF  
1988.3.30/181cm/77kg  
대구대



7 이승기·MF  
1988.6.2/177cm/67kg  
울산대



8 안동혁·MF  
1988.11.11/176cm/74kg  
광운대



9 김동섭·FW  
1989.3.29/187cm/78kg  
장문고



10 박기동·FW  
1988.11.1/181cm/83kg  
송실대



11 조우진·MF  
1987.7.7/177cm/70kg  
포철공고



13 김호남·FW  
1989.6.14/178cm/73kg  
광주대



14 유동민·FW  
1989.3.27/191cm/91kg  
초당대



15 유종현·DF  
1988.3.14/196cm/92kg  
건국대



16 김성민1·FW  
1987.5.11/185cm/75kg  
호남대



17 박 현·MF  
1988.9.24/175cm/65kg  
인천대



18 김홍일·MF  
1987.9.29/178cm/72kg  
연세대



19 박희성·MF  
1987.4.7/170cm/68kg  
호남대



20 고은성·DF  
1988.6.23/174cm/73kg  
연국대



21 조상준·GK  
1988.7.24/187cm/85kg  
대구대



22 김수범·DF  
1990.10.2/176cm/68kg  
상지대



23 박성화·MF  
1988.8.23/178cm/71kg  
조선대



24 박요한·DF  
1989.1.16/177cm/73kg  
연세대



25 김성민3·FW  
1985.4.19/175cm/70kg  
고려대



26 노형석·DF  
1988.11.17/186cm/80kg  
동국대



27 임하람·DF  
1990.11.18/186cm/87kg  
연세대



28 윤광복·MF  
1989.1.25/180cm/74kg  
조선대



30 김성민2·FW  
1990.9.27/181cm/73kg  
전남과학대



31 허재원·MF  
1984.7.1/188cm/81kg  
광운대



32 박상현·MF  
1987.2.11/175cm/68kg  
고려대



34 안성남·DF  
1984.4.17/172cm/68kg  
중앙대



35 이재찬·MF  
1987.7.26/178cm/69kg  
조선대



36 셀린·FW  
1989.6.11/190cm/86kg  
브라질



37 주앙파울로·FW  
1988.6.2/188cm/66kg  
브라질



38 윤민호·MF  
1987.1.21/177cm/73kg  
강릉시청

### ○ 공격 포인트

선 수 명	골	도움
김 동 섭	7	2
박 희 성		1
김 성 민3	1	
김 수 범		3
김 홍 일		1
박 기 동	3	4
박 현		1

유 동 민	2	
유 종 현	3	
이 승 기	8	1
조 우 진		1
주앙파울로	7	1
허 재 원		1
안 동 혁		1

## 광주신세계 TOWN

1995년 4월 10일 광주법인 설립!  
광주신세계는 광주기업입니다.

- 2003년 광주-전남지역 중 아담스랜드 증권사 인수하여 상장하였습니다.
- 광주은행을 주가해 운영으로 5도 광복합인이 현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자국상품 판매 확대 등 일익 이세임을 통한 상생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 “빛고을 전사들의 10문10답”

빛고을 중원 사령관 김은선



## INTERVIEW

인터뷰 광주FC MF 김은선

광주에는 특이한 별명을 가진 선수가 있다. 바로 ‘초작살 간지남 짐승돌’ 김은선(MF)이다. 181cm, 77kg의 다부진 체격으로 저돌적인 돌파와 몸싸움에 능한 김은선은 광주의 중원을 책임지고 있다. 활동반경이 넓고 기술이 좋아 광주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베스트11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10 우선지명을 통해 광주에 입단한 김은선은 사실 부상병이었다. 동계훈련 내내 이어진 재활훈련에도 시즌 초반 그라운드에서 그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리고 올시즌이 돼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끈임없는 움직임으로 비밀병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광주의 부주장을 맡고 있는 그는 패션감각도 뛰어나 선수들 사이에선 패셔니스타로 통한다. 광주의 터프한 중원 사령관 김은선을 만나본다.

### ▶축구를 하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하석주가 한일전에서 원발로 크로스를 날리며 골을 넣는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꼈다. 당시 학교 축구부에서 가장 늦게 시작했지만 승부욕 때문에 가는 곳마다 축구공과 함께했다. 방 안에서도 공을 가지고 연습했고, 아버지가 시즌 축구공으로 드리블을 하며 등하교를 하기도 했다.

### ▶광주FC에 입단한 소감은

솔직히 처음에는 광주라는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곳에 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축구 선수는 그라운드 내에서 뛰면서 관중들에게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점에서 광주는 매우 매력적이다.

###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내가 신인선수이긴 하지만 프로든 아마추어든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선배들이 몸 관리를 하는 것이나 경험의 차이는 있는 것 같다. 남들보다 실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존경하는 선수는

단순히 좋아하는 선수들은 많지만 존경하는 선수들은 많지 않다. 외국 선수들 중에는 사비나 에시앙 같은 선수를 존경한다. 팀 내에서는 박호진 선수를 존경한다. 실력도 훌륭하고 몸 관리나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기 때문이다.

### ▶특별히 선호하는 플레이는

바르셀로나와 같은 패시브 위주의 점유율 축구를 매우 선호한다. 그들의 플레이는 정말 가슴에 와 닿는다. 그러한 플레이를 해보는 것이 소원이고, 그래서 경기 때에도 그러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메시와 같은 선수와 뛰어본다면 참 영광일 것 같다.

### ▶축구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 최악의 순간은?

최고의 순간은 대학교 4학년 때 대학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할 때였다. 최악의 순간은 대학교 1학년 때다. 우리학교가 5년 만에 전국체전 본선에 진출했는데 본선경기에서 승부차기에 나가 실축하고 말았다. 5번키커였기 때문에 실축 후 바로 경기가 종료되었는데, 그 때 가장 서럽게 울었던 것 같다.

### ▶좋아하는 골 세리머니는

개인적으로 춤추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골을 넣으면 당연히 가장 유행하는 걸그룹의 춤을 출 것이다. 과거에는 원더걸스의 ‘텔미춤’을 쳤었다.

### ▶남동생도 축구선수인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상급학교에 입학할 때마다 항상 동생과 함께 들어가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래서 나는 동생과 초·중·고·대학교가 모두 같다. 현재 동생은 나의 모교 대구대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 이름은 김은수이다.

### ▶자신의 플레이 가운데 장·단점은?

특별한 장점은 없는 것 같다. 굳이 장점을 고르자면 많이 뛰는 것과 상대 선수의 공을 뺏는 수비 능력이 좋다는 점이다. 단점은 많다. 아직 몸 상태가 좋지 못해서 체력적인 부담감이 크다. 패스 또한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서 경기 중에 패스미스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 ▶올 시즌 마무리는

개인적인 욕심은 없다. 부상없이 한 시즌을 완벽하게 뛸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력하다보면 결과는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광주FC 명예기자 박양태



### 프로필

이 름 : 김은선  
등 번 호 : No. 6  
생년월일 : 1988년 03월 30일  
포 지 선 : MF  
체 중 : 77kg  
신 장 : 181  
좌 우 명 : 내가 흘린 땀방울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 NEWS 구단 뉴스

### “첩경사 광주FC, 연일 함박웃음”

## 이승기 · 김동섭 · 손민우 줄줄이 대표팀 승선



이승기



김동섭



손민우

요즘 광주FC의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다. 신인선수로 첫 프로무대를 밟은 소속 선수들과 산하 유스팀 선수가 잇따라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기 때문이다.

광주FC에 따르면 광주의 프랜차이즈 스타 이승기가 조광래 감독의 부름을 받으며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았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그는 복성종을 거쳐 축구명문 금호고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에는 전국대학대회에서 득점왕에 올랐을 만큼 골 결정력을 갖추고 있으며 단단한 체격에 공 다루는 기술이 뛰어 나고 슈팅력도 좋다. 시즌 초반 부상으로 인해 4월이 지나서야 데뷔했지만 무서운 득점력으로 현재 8골 2도움을 기록, 팀 득점 선두에 올라있다.

날카로운 패시프로 투톱을 지원하면서 팀 득점력도 배가 시키고 있는 광주의 프랜차이즈 스타이다.

부상으로 인해 지난 9월 13일 올림픽 대표팀 소집에 불참한 김동섭은 재활을 끝내고 다시 대표팀에 합류한다. 대표팀 간판 스트라이커인 김동섭은 지난 성남전에서 영리한 플레이로 페널티킥을 얻어내는가 하면 전반 종료직전 감각적인 골을 뽑아내며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또 광주FC 산하 유스팀인 광덕중 손민우(14,FW)도 U-14 한일 교류전 대표로선발돼 파주에서 담금질이 한창이다. 지난해 U-13 상비군에도 선발된 바 있는 손민우 선수는 타고난 스피드는 물론 슈팅력과 순발력, 볼컨트롤 등에서도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등 광주의 축구신동으로 불리고 있다. 이밖에도 광주에서는 시즌 초반 박기동이 A대표팀에 선발돼 첫 태극마크를 달았으며, 중앙 수비수 이용은 올림픽 대표팀에 뽑혀 이름을 알린 바 있다.

## GWANGJU F.C INFORMATION



### 광주FC 공식 후원업체 GWANGJU FOOTBALL CLUB SPONSORS



절취선



#### VIPS와 광주FC가 함께하는 특별한혜택 **VIPS 5,000원 할인권**

- 사용처: 빙스 광천점, 상무점, 충장로점
- 유효기간: 2011년 11월 30일 까지
- 메인메뉴 또는 샐러드바 주문시 사용 가능합니다.
- 성인 2인 이상 식사 시 테이블당 1매 사용 가능합니다.
- 타 쿠폰과 중복 사용 불가합니다.
- 제휴카드와 중복 사용 가능합니다.(단, CJ임직원카드 제외)
- 현금교환 및 잔액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 주문 전 제시하여 주십시오.



소중한분의 생일 이벤트!  
**빙스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드세요!**  
자세한 내용은 매장으로 문의 주세요.

빙스 광천점 062)351-1997 빙스 상무점 062)376-1997 빙스 충장로점 062)224-1997

빙스 호남·제주카페에 들어오시면 선물인 **광명!** [NAVER 빙스 호남·제주 광명](http://cafe.naver.com/honamvips/) <http://cafe.naver.com/honamvips/>

POS KEY: 가이타이거즈5천원